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해양 어업 산업에 대하여 67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지원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보안법에 따라 팬데믹 관련 사업 손실 피해를 입은 해양 상업 및 고용 어업 산업에 직접 지원 제공

570만 달러 규모의 2차 라운드 구제 추가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과도한 사업상의 손실을 입은 뉴욕의 수산물, 해양 상업, 고용 어업 산업에 대하여 오늘부터 670만 달러 규모의 구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보안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따른 연방 지원금을 운용하는 해양 어업 구제 프로그램(Marine Fisheries Relief Program)을 통해 총 1,240만 달러 중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추가 57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서 상업적 양식장, 선박 임대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해양 어업 산업 종사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엄청난 손해를 경험했고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산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전체에 필수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해안 지역사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의 [해양 어업 구제 프로그램](#)은 해양 어업 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산물, 상업 어업, 해양 레크리에이션 임대 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뉴욕주의 지원 대상 사업자들은 지난 5년 대비 2020년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주정부 지원은 뉴욕의 어업 관련 사업체의 연간 수익 평균을 기초로 전국 해양 대기 관리 어장(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ies, NOAA Fisheries)이 결정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국립해양대기국 수산 및 대서양 연방 해양 수산 위원회(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 ASMFC)와 협력하여 이 자금을 분배하고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는 [뉴욕 수산 구호 프로그램 지출 계획\(New York Fisheries Relief Program Spend Plan\)](#)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해양 어업 및 수산업은 주정부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관광 산업, 레크리에이션,

해양 관련 기회를 촉진할 주요한 자산입니다. DEC는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제 지원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여 더욱 강한 뉴욕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0년 11월 [Cuomo 주지사는 자금 지원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DEC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뉴욕 주민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약 300건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접수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양식업 관련이며, 최대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수산물 운송 사업과 양식업은 전체 신청에서 더욱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액이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의 고용 어업 산업은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지원금 수령자는 신청 시 제공한 주소로 수표와 서신을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전국 해양 대기 관리 어장은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어업 지원금 2억 5,5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보안법에 따라 해당 산업 지원을 위해 57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이와 함께 그레이트 레이크스 어장(Great Lakes Fisheries)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DEC는 전국 해양 대기 관리 어장 및 ASMFC와 협력하여 향후 90일 동안 추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인 2차 뉴욕 지출 계획(New York Spend Plan)을 수립할 것입니다.

뉴욕의 해양 어업 구제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은 다양한 뉴욕 어업 업계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과 협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의 다양한 수산업 및 어업 산업이 공정하고 공평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자문 그룹이 제공하는 의견 및 필수적인 검토 사항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문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bert Danielson,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Marine Resources Advisory Council) 위원 겸 취미 낚시 이해 관계자
- Melissa Dearborn,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 위원 겸 해양 무역 산업 대표
- Neil Delanoy, 고용 어업 산업 대표
- Anthony DiLernia, 미드애틀랜틱 어업 관리 위원회(Mid-Atlantic Fishery Management Council) 뉴욕 대표 겸 고용 어업 산업 대표
- Daniel Farnham, Jr., 상업 어업 산업 대표
- Emerson Hasbrouck, 서퍽 카운티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Suffolk County)
- Thomas Jordan,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 위원 겸 상업 어업 산업 대표
- Paul McCormick, 양식 산업 대표
- Christopher Quartuccio, 양식 산업 대표
- Gregg Rivera, 서퍽 카운티 코넬 협동 조합
- August Ruckdeschel, 서퍽 카운티 경제 개발 계획부(Suffolk County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lanning).

뉴욕의 해양 자원은 관광산업, 어업, 기타 산업 등을 통해 약 350,000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뉴욕주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 자금을 확보 및 제공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은 업계를 돕고 중요한 해양 환경을 개선하며 어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여러 단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뉴욕은 미국 상무부(U.S. Commerce Department)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업 플루크 어업과 관련하여 뉴욕주가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쿼터를 제공받은 것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의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낚시와 다이빙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롱아일랜드 해안의 인공 어초를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해안 풍력 합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및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대한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 해안 시추 금지, 주요 생물종 보호를 위해 청어 포획 시 대형 건축망 사용을 금지하는 '벙커 법(bunker bill)'의 통과, 진보적인 롱아일랜드 조개 복원(Long Island Shellfish Restoration) 이니셔티브의 지속, 수질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등과 함께, 주지사의 노력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